

삶의 갈등

2021년 9월 19일 설교 (창세기 3:1-21)

소개

이것은 결혼에 관한 설교 시리즈의 세 번째 주입니다.

지난 주에 나는 결혼에 대한 설교 시리즈가 때때로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독신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인간 공동체의 기초이자 성경의 중심 은유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 결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혼자이든 독신자이든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결혼 생활에서의 갈등이 가족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결혼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이 시리즈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 지금 함께 기도하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봅시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아계신 예수님께 여십시오.

아버지, 우리는 순종적이고 즐겁고 생산적인 아들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의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를 더욱 예수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인트 1. 죄가 관계를 깨뜨림

포인트 2: 책임자는 누구인가?

포인트 3: 삶 전체의 갈등

포인트 1. 죄가 관계를 깨뜨림

창세기 3:1

1 뱀은 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보다 간교하니라

그는 여자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고 말씀하셨느냐?”

이 뱀은 평범한 뱀이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천사였기에 하늘을 떠나 천사의 삼분의 일을 데리고 갔습니다.

사탄은 이 새로운 인간들도 자신과 합류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교활한 거짓말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는 하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나무의 열매도 전혀 먹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너무 제한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믿기를 원합니다.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좋은 것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을 때 죄가 우리 마음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둑질하고 간음합니다.
그러한 죄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까지 기꺼이 기다리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2 절과 3 절에서 하와가 사탄의 공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창세기 3:2-5
2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되
3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사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친구 여러분.
예수님은 그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일반적으로 그의 거짓말에 대해 교활합니다.
그는 우리가 진실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4 절에서 사탄은 직접적이고 담대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이브의 주목을 받은 문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많은 권한과 자유를 얻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통제를 원하므로 무엇이 최선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이 최선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이 ”좋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결혼 디자인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재정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계획이 선하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 모두에게 속삭이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이면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통제권을 빼앗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아담과 이브의 생각과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죄가 항상 시작되는 곳입니다.
죄는 처음부터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나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 나쁜 생각이 우리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그 생각은 건강에 해로운 욕망이 됩니다.
그러한 나쁜 생각과 불건전한 욕망이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야고보서 1:13-15 에서 볼 수 있습니다.

13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신 것을 스스로 취하려는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6 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창세기 3:6

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얼마도 주고 그녀와 함께 있던 그녀의 남편에게, 그는 먹었다.

누가 먼저 죄를 지었습니까?

불행하게도, 이 구절은 역사의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 하와가 처음으로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죄를 가져온 것에 대해 하와를 비난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하와가 그 열매를 먼저 한 입 먹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녀는 뱀의 거짓말을 믿었고 무엇을 할지 결정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6 절의 마지막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그와 함께 한 남편이 먹고.”
아담은 내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에게 동산을 돌볼 책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내의 지도자이자 보호자라는 의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의 일에 실패했습니다.
아담은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욕망으로 열매를 바라보는 하와를 보았고 아담은 침묵했습니다.

아담은 아내를 인도하고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음식을 먹을 때 자신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를 도입한 책임이 하와가 아니라 아담에게 있다는 추가 증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21~22

21 사망이 사람(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예수)으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로마서 5:18-19

18 그러므로 한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위는 모든 사람에게 의롭다 하심과 생명에 이르느니라
19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아담이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7절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

7 이에 두 사람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엮어 겹옷을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들은 전에 알몸이었고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수치심은 서로를 불편하게 하여 스스로를 덮으려 한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다루기 위해 몸을 가리는 것은 결코 소용이 없습니다. 수치는 피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치심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죄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여 남의 눈에서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으로 옷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지 봅니다.

창세기 3:8-9

8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더라

9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의 횡적 관계는 그들의 죄로 인해 영향을 받아 서로 숨었습니다.

8 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도 손상되었음을 봅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몸을 숨기려 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죄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규칙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당신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누가복음 15 장에 나오는 탕자와 같습니다.

그 청년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집과 그분의 모든 규칙을 떠날 때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서 분리되면 아버지와 관계도 잃게 됩니다.

9 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어디 있느냐”고 묻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가 한 일을 인식하도록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초대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17:26~27

26 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사람으로 만드사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거주할 기간과 경계를 정하시고

27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혹시 그를 향하여 가는 길을 느끼고 발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는 실제로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친구여, 나는 당신의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그에게서 숨어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러나 그는 실제로 우리 각자에게서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당신은 그에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알고 당신을 따르고 당신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 길을 걸을 것인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그 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서로로부터 분리시키기 때문입니다.
다음 몇 구절에서 그 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10-11

10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 이르시되 누가 네게 네 몸이 벗었다고 하였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네가
먹었느냐

10 절은 이 장에서 가장 슬픈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창조주와 친밀하고 개방적이며 신뢰하는 관계를 누렸습니다.
그 관계가 깨졌습니다.
아담은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다른 일을 하셨는가?

아니오,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고 선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 뒤에 부끄러움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정원에서 몸 전체를 숨기려고합니다.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그들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는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본다.
그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심지어 모든 나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당신과 같은 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러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더 하십니다.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는 아담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제 12-13 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봅시다.

Point 2. 책임자는 누구인가?

창세기 3:12-13

12 그 사람이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 여자는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관계를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가 있고 서로 수평적 관계가 있습니다.
죄는 이 모든 관계를 손상시킵니다.

사탄은 하와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를 원했고 대신 사탄에게 붙어 있기를 원했습니다.
죄는 연결되어야 하는 곳에서 분리를 만듭니다.

나와 함께 12 절을 보고 죄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불신과 분리를 초래했는지 보십시오.

아담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까?
아담은 자신의 죄를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그는 하와를 비난합니다.
아담은 자신이 그 열매를 먹은 것이 그녀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주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아내를 전혀 주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종류의 아내를 주었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치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몸을 가리듯 말로 자신의 죄를 가리려 합니다.

Eve도 같은 일을 합니다.

13 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은 하와에게 그녀의 행동을 설명하라고 하십니다.
하와는 아담이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죄가 삼각관계에 끼친 모든 피해를 보십시오.

첫 번째 죄를 지은 직후에는 갈등이 세상에 들어와 모든 관계를 손상시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와 반역에 대해 모든 사람을 어떻게 벌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포인트 3: 삶 전체의 갈등

창세기 3:14-15

14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배로 가리라
15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적의를 두어 그는 당신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뱀과 여자 사이에, 그리고 뱀의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도 원수와 증오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와의 후손 중 하나가 사탄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15 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인식할 때 그것은 놀랍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에 관한 구절의 중간에서 우리는 놀라운 약속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복음의 소망이 처음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창세기 3:15b 를 보십시오(문자 b 는 절의 후반부를 의미합니다).

”그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예수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머리”는 사탄의 머리입니다.

하느님의 약속은 하와의 후손 예수가 언젠가 사탄의 머리를 공격하여 사탄을 물리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탄도 공격하지만 그의 공격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것은 사탄의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사탄은 자신이 예수님을 상하게 한 것일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사탄은 패배했고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죄의 치유와 새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나는 이 그림을 좋아한다.

Eve의 얼굴에서 죄책감과 수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구주 예수를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Mary는 Eve에게 "괜찮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적을 물리칠 것입니다.
그가 고장난 모든 것을 고칠 것입니다."

창세기 3:16-19

16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리라.

in pain you shall bring forth children.
당신의 욕망은 당신의 남편과 반대됩니다.
but he shall rule over you."

17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and have eaten of the tree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은
'You shall not eat of it,'
당신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in pain you shall eat of it all the days of your life;
18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너희를 위하여 나게 하고
and you shall eat the plants of the field.

19 얼굴의 땀으로
you shall eat bread,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for out of it you were taken;
당신은 먼지,
and to dust you shall return."

죄의 영향은 삶의 모든 부분에 침투합니다.

세상에는 아직 즐길 것이 많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식,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 우정, 결혼,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이 모든 물을 채색하는 잉크처럼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16-19 절에서 우리는 죄가 모든 삶에 미치는 영향을 봅니다.

1. 16 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이 낳은 여자에게 복을 주시되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2. 우리는 또한 16 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것임을 봅니다.

그들은 통제를 위해 서로 경쟁할 것입니다.

첫 번째 죄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시도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행복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권력 경쟁은 결혼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3. 17-19 절은 우리가 땅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일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일은 더 어려워집니다.

4. 19 절의 마지막 형벌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질병과 전쟁과 죽음을 세상에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친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만드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만드십니다.

이제 마지막 두 구절을 봅시다.

창세기 3:20-21

20 그 남자는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다. 그녀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행위에 대해 물으실 때 둘 중 하나가 책임을 졌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21 절의 놀라운 점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의 죄를 책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벌거벗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 옷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니?

하루 이틀?

인간이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덮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죽이고 가족을 취하여 아담과 하와를 위해 더 좋은 덮개를
만드셨습니다.

그들을 덮기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또 다른 그림입니다.

죄를 속죄하려면 피를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덮기 위해 동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와의 후손이신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덮기
위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부모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 죄를 내가 책임지겠다.

내 희생의 죽음이 당신의 모든 죄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될 수 있도록 죄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습니까?

이 좋은 소식에 마음을 열겠습니까?

죄는 이 세상에 죽음과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기꺼이 책임져 주심으로 당신이 그에게서 치유와 소망과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 분 후에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오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마음에 대해 하나님께 이야기하기에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기를 원하는지 결정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의 죄를 씻어 주시고 당신을 천국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가 있습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내 죄, 여기 있는 내 친구들의 죄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짊어지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합당하지 않은 용서와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당신의 생명과 평화와 희망으로 채우소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